아베 정권과 야스쿠니신사-2 -동영상_스크립트-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 아베 수상은 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할까요?
- 첫째, 그의 출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고향은 야마구치현(山口縣)이고 옛날에는 초슈번(長州藩)이라고 불린 지방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의 시작은, 초슈번이 에도막부(江戶幕府)와 전쟁을 벌인 에도시대 말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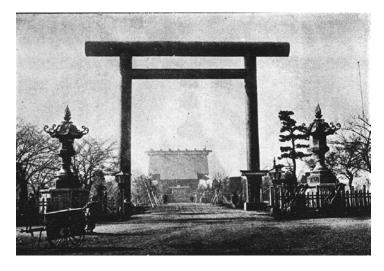


 에도막부 말기에 초슈번이 막부토벌운동을 일으켜 에도막부와 조슈번은 전쟁을 계속했 습니다. 이 때, 초슈번은 무사들의 사기를 높 이기 위해 전사자들을 위령하고 현창하는 초혼장(招魂場)을 초슈번 내 16곳에 마련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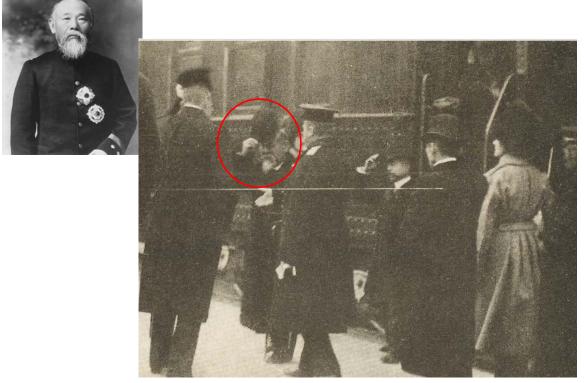
막부말기에 초 슈 시모노세키 에 세워진 마츠 야마 초혼장.

 그리고 초슈번과 사쓰마번이 중심이 되어 에도막 부를 타도하여 메이지(明治)정부를 세운 후, 초슈 번에서의 초혼장을 도쿄에 들여와 1869년 정부는 '도쿄 초혼사(東京招魂社)'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에 도쿄 초혼사는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 초기의 도쿄 초혼사

- 아베 신조는 자신의 고향인, 근대 일본을 창설한 초슈번에 대한 향토애로 초슈번이 고안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보통 정치가와는 달리 지나친 애착심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초슈번은 강화도 사건을 일으킨 기도 다카요시, 한국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 명성황후 암살범인 미우라고로 조선공사 등의 출신 지역으로 악명높은 지역입니다.



안중근에 의해 사살되기 직전인 이토 히로부미(하얼빈 역에서)

- 아베 정권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한국 독립군의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고하얼빈에 세워진 안중근 기념관에게 불쾌감을나타내는 것은 아베 신조의 맹목적인 향토에에 요인 중 하나가 있는 듯합니다.
- 아베 총리는 TV에 출연해 안중근 기념비가 하 얼빈에 들어선다는 건에 관해 "이토 히로부미 는 초대 일본 총리이고 (자신의 고향)초슈에서 도 존경 받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향토애을 노 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아베 수상은 에도막부 말기의 초슈번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존경한다고 선언해 야마구치 현 하기시(萩市) 소재의 쇼 인신사(松陰神社)를 참배했습니다.



요시다 쇼인:1830-1859, 병학·유학·국학, 양학 등을 집대성해 아시아 침략을 주창 한 초슈번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은 조선침략론자였고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대한 조공사로 착각했고 울릉도로부터 조선을 침공하는 것을 주창했습 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은 현재, 요시다 쇼인의 고향인 하기시(萩市)를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기시(**萩市**)의 쇼인신사



-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 그것은 아베 정권이 진행 중인 집단적 자위 권 행사 인정과 헌법 제9조 개정에 깊이 관 여되어 있습니다.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 헌에 따라 정식 군대를 갖게 된다면 언젠가는 전 사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 아베 정권은 태평양 전쟁 패배로 침략 국가가 되었고 국민 전체가 국제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면 항상 전승국이 되어 과거에 대한 열등감을 떨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역사 교과서'와 같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면 옛날처럼 꼭 전사자들에 대한 위령과 현창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를 국민묘지로 만들어 초혼 위령·현창·신으로 승격, 이라는 프로세스의 재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미「치도 리가후치 묘원(千鳥ヶ 淵墓苑)」이라는 국립 묘지가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천황의 위치도 개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자민당의 개헌안에는 제1조를 개정해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 원수'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천황에게 태평양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 의식을 주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길생각인지도 모릅니다.

- 1952년 4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주권 회복식전'이 2013년 4월 28일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식전 마지막에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참석자 전원이 '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 했습니다. 이것이 천황의 국가원수 복귀의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아베 정권의 목적은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침 략 국가로서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국민 에게 잘못된 내셔널리즘을 심어놓아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민의 조건, 즉 국민투표에 서 5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도록 행동하고 있습니다.
- 최종 목적을 개헌에 의해 정식 군대의 부활로 보는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통해 역사 왜곡에 박차를 가하고 망언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하도록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